

# 함석헌의 평화사상을 통해본 한국의 평화

전진우

(제주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국문요약>

「우리가 함석헌의 사상 안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속에 깊고, 푸른, 그리고 다양한 물줄기가 굽이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고, 이 물줄기는 다양한 시대와 지역, 종교와 사람들을 막힘없이 넘나들며 하나로 힘차게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즉 그의 사상 안에는 동과서가 만나고, 불교와 기독교가 만나고, 노장의 자연주의와 성서적 역사주의가 만나고, 종교적 신비주의와 합리적 과학주의가 만나고 있는데 단순한 병존이나 같등이나 천박한 습합(躰合)이 아니라 인류 미래의 종교의 어떤 방향을 암시하는 실증적 범례가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의 다양함과 포괄성 때문에 어느 하나의 틀로서 설명하고 해석하려 든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의 사상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서구 합리주의적 학문 방법론에만 익숙한 지식인들이나, 학문의 식민주의성을 벗겨내지 못한 학자들은 함석헌의 사상을 분석하거나 비판하기 이전에 그 안에 발을 디딜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설사 몇 편의 글을 읽어다하더라도 그 깊이에 다다르지 못할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오늘날 함석헌의 사상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게 하는 주요인이기도 하며, 또한 그로인해 그의 사상의 좀 더 연구되어 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 본문내용 중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해외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촛불시위일 것이다. 이에 대하여 수많은 이견이 존재 하였으나 근래에 보기 드문 평화적인 시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의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이러한 평화적인 시위가 언론의 1면을 장식하면서 이와 비례하여 사람들은 평화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관심의 증가의 중심에 함석헌의 서 있었다. 우

리나라의 평화주의의 시초라 할 수 있으며, 최초의 노벨평화상 후보자 평생을 수많은 학문적 연구와 자신의 사상연구에 몸 바친 학자 등 함석헌을 수식할 수 있는 수식어는 너무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그에 평화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너무 미비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에 대한 연구와 업적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종교적인 연구와 그의 민족주의 사상에 대한 연구들이다. 우리나라의 평화연구는 너무 많은 서양의 평화연구학자와 그들의 학문에 대한 연구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너무 부족한 듯하며, 그런 의미에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평화학자의 시초라 할 수 있는 함석헌의 평화적인 사상을 기본으로 그의 사상의 정화라 할 수 있는 씨울 사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 함석헌, 씨울, 평화연구, 촛불시위, 한국의 평화운동

## 1. 序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서인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하여 우리민족의 받은 고통에 대해서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는 사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쟁의 고통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의 참혹함과 그것이 주는 공포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서라고 하기에는 평화가 가지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 되었다고 생각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논거가 비약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많은 외침을 겪으면서 많은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 평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더욱 강하여졌다는 주장이 일견 비약적인 주장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하여 전혀 관계가 없다는 주장 또한 그리 강한 설득력을 갖지는 못 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

화를 사랑하고 숭상한다는 말이 틀린 것이라고는 말하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만큼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도 드물거니와 정말 근세계 외세의 침략에 굴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려 했던 나라도 드물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상당히 아이러니한일이지만 이렇게 평화를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나라에서 평화에 대한 연구를 한 학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 일 것이다. 특히 근대 이후의 일제치하를 보내면서 독립에 대한 수많은 열정적인 몸부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평화적인 운동이라는 것이 3.1 운동 하나뿐임을 기억한다면 이는 이를 반증하는 좋은 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평화연구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고찰을 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상당히 광범위한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근대 한국평화사상의 효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 현대 평화의 발전에 공헌한 바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함석헌의 평화 연구에 대하여 연구하여 그의 사상을 통하여 한국의 평화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우선 함석헌을 통하여 한국의 평화사상을 고찰하려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한국의 평화사상을 추구하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겠으나 역사적으로 파악하려면 구체적인 패러다임이 중요기 때문에 함석헌의 사상을 통하여 한국 평화사상의 한 실체로 고찰하는 것이 비교적 실증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이고, 두 번째는 함석헌의 평화사상은 한국의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사이의 민족사와 유리시켜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에 그 것이 가지는 함의가 충분히 한국의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큰 틀의 평화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석헌의 평화사상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근현대의 한국의 평화사상을 살펴보는 것은 분명히 가치가 있을 것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이해에서 함석헌의 평화사상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의 평화사상이 지금의 우리에게 끼치고 있는 영향들

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평화사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함석헌의 평화론

### 1. 함석헌의 일생

함석헌은 조선조 말엽에 태어나(1901년) 일제 식민지 시대의 수난을 고스란히 당하면서 두 차례 투옥되었는데 그러는 동안에 겪었던 고통과 억압의 시간들은 그에게 많은 사색이 시간과 주제를 주었고 그러한 연유로 그의 인간성이나 사상이 이 시간에 많은 부분 형성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 후 공산치하에서 민에 의해 끌려나오다시피 하여 평안북도 문교위원장 자리에 있다가 소련군에게 체포되어 신의주학생사건의 배후 조종자로 찍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하는 과정을 통해 소련군사령부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50일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석방되었다가 다시 체포되었는데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강요받았다. 이 때문에 더 이상 복에 머물 길이 없어 남하하였다. 남하하여 종교인이라는 딱지가 붙을 정도로 조용히 종교적 영역을 탐색하는 집회를 계속해오다가 이번에는 글 한 편을 쓴 죄로 남한 정부에 체포되어 40여 일간 고문을 당했는데 거꾸로 매달리는 치욕을 경험했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했다. 그를 고문한 경찰은 일제하의 고등계 형사였다. 남한 정부에서 고문당한 것은 필화사건인데 그 내용 중에 “남은 복을 괴뢰라고 하고 북은 남을 괴뢰라고 하니 있는 것은 괴뢰뿐이요 참 나라는 없는 셈”이라는 내용이 초점이었는데 그의 말대로 그는 자기 땅이면서 정착할 데 없는 자신을 뼈저리게 실감한 것이다.

그러나 함석헌은 대 정부투쟁 따위를 생각하지 않고 요청 받은 글이나 쓰고 종교집회를 계속하다가 미 국무성의 초청을 받아 미국 시찰을 하고 뒤이어 영국을 거쳐서 유럽 전체를 유람하였다. 박정희가 군사 쿠

데타로 균립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정권을 양심적인 민간인에게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그 자리에 그대로 눌러 앉겠다 하는 선언을 듣고 그의 속에 잠재했던 저항심과 분노가 폭발하여 서둘러 한국에 돌아온 것이 반정권투쟁의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함석헌은 쉬지 않고 민주화의 전선에서 상징적 역할을 했고, 잡지사 '사상계'(思想界)의 요청으로 글을 쓰면서 국민 앞에 나타났는데 그로부터 계속 권력의 사찰을 받고, 납치되고, 재판정에 서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정죄를 당하는 쓴 경험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런 삶의 과정에서 그는 평화사상을 계속 주장해 왔으며 때로 민주화의 전선에 선 젊은 청년들의 과격성과 상충되어 쓴맛을 보기도 했지만 평화에의 갈구를 양보하거나 늦추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삶의 시대적 배경을 반영함으로써만 그의 평화사상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sup>1)</sup>

## 2. 함석헌의 평화론의 사상적 배경

함석헌은 서구화된 교육제도 하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끝까지 동양 사람으로 머물러 있었다. 그는 스스로 대학을 못 가본 사람이라는 것을 약점과 같이 얘기했는데 그 때문인지 모르나 그의 주장의 서술방법은 어디까지나 동양적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계속 평화를 말하나 서양적인 의미의 평화론을 전개한 적은 별로 없다. 그는 애초부터 아카데미즘에 관심도 없었으며 그러한 글을 쓰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평화에 관한 글들을 읽으면 모두 그의 확신의 선언이지 논증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의 평면성을 뚫고 그의 주장의 뿌리를 찾으려면 그의 평화론의 배경을 이룬 사상들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고전적인 것으로 함석헌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양적인 것으로 먼저 노장학파를 들 수 있다. 그는 노자를 평화

1) 이치석, 「씨을 함석헌 평전」, 시대의 창, 2005, pp 647-657 참조

주의의 첫 사람이라고 단언한다. 동시에 그는 평화운동을 일으키자는 글에서 평화운동에 필요한 조건을 말하면서 장자의 주장을 먼저 내세운다. 이 두 사람의 사상은 그의 평화사상에도 상당한 배경이 되고 있다.

둘째, 함석헌의 기독교를 맹렬히 비판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전쟁에 대한 아무런 태도의 확립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예수에게서 평화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셋째, 힌두교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오랫동안 힌두교의 고전인 '바가바드기타'를 강의해왔으며 그것을 번역했다. 그런데 그는 힌두교 자체에서 보다는 힌두교를 생활에서 체험한 간디를 통해서 힌두교의 근본정신을 흡수했다.

넷째, 퀘이커교를 들 수 있다. 그는 정통 기독교에서 이탈하여 일본에서 시작된 무교회주의에 가담했다가 '역사는 또 한 걸음 나아갔다'는 선언과 더불어 거기서 탈퇴한 후 얼마 후에 퀘이커교에 가담했다. 퀘이커교는 간디 자신도 높이 평가했고 무교회주의의 선창자인 우치무라(内村)도 역시 마찬가지로었는데 함석헌은 이 종파에 가입한 핵심적인 이유를 그들의 평화운동에 가담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한국의 역사 자체를 근원에 있어서 평화주의적인 모델로 보고 있다. 이 사고는 그의 바탕에 깔린 것으로 그가 30대 초반에 쓴 한국역사서의 도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상에서 그의 평화사상에 영향을 미친 여러 계보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생애를 반 평화적 현실과 도전하면서 얻어낸 그의 평화사상의 출발점들이자, 매개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함석헌의 평화론

#### 1) 함석헌의 평화에 대한 정의<sup>2)</sup>

함석헌은 도체에서 평화에 대한 언급을 했을 뿐 아니라 그의 사고는

평화라는 큰 틀 속에서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함석헌의 평화를 주제로 하는 글들을 여러 편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체적으로 평화가 무엇이나 하는 정의를 내리려고 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그가 모든 사물을 서술하는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동양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이해하려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그의 글은 거의 선언적이며 직관적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예들로 평화에 대한 그의 이해를 표현하는 말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 “평화는 나의 신조이다.” “평화는 내게 있어서 하나의 논(論)이 아니라 신조이다.” 그러니까 그는 ‘평화는 무엇이나’라는 질문을 주제로 삼을 의사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2) 함석헌은 생명과 평화를 연결시키면서 생(生)은 명(命)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고 운동이며 그것이 바로 대도(大道)인데 그 대도가 곧 평화의 길이라고 한다. 그는 산다는 것이 곧 평화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는 생과 마찬가지로 선택을 불허한다. 생은 ‘살아있다’가 아니라 ‘살아라’는 명령이듯이 평화는 어떤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행동이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함석헌은 평화를 인간의 본능이라고 한다. 그것은 ‘평화가 삶의 본연적인 길’이라는 그의 말과 같은 뜻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자연세계 관찰에서 나온 다윈의 생존경쟁의 원칙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을 반박한다. 생존경쟁이라는 대전제로 자연을 보는 눈은 필연적으로 약육강식을 본능적인 것으로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면일 따름인 것이다. 자연계 자체는 상호협조하고 의존하고 화합하는 면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인간에게 있어서 생존경쟁의 일면은 경우에

2) 그의 저서에는 구체적으로 평화에 대한 정의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함축적으로 설명하려 하는 노력이 상당히 많았다.

따라서 나타나고 있으나 그 본능의 원래의 모습은 서로 협조하는 것이고 이 본능에서 모든 사물이 발달되는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 대세라고 보는 것이 그의 사회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함석헌은 평화를 그의 신조라고 했기에 평화는 그에게 있어서 당위성을 논할 여지를 주지 않으며 그는 평화의 가능성을 묻는 것조차 용인하지 않으려고 한다. 할 수 있으면 평화운동을 하고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마저 봉쇄해 버리는 것이다. “살고 난 뒤에는 쉬움과 어려움도, 좋고 언짢음도, 잘잘못도 있겠지만 삶을 뿔어대는 불길 속에는 그런 것이 다 있을 여지가 없다. 생자(生者)는 불가불생(不可不生)이요, 사자(死者)는 불가불사(不可不死)이다. 이는 필연적인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데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다.”라는 그의 말에서 보듯이 평화는 바로 삶과 직결된 것으로 사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그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본 그의 평화에 대한 이해는 삶(生)만큼 자명한 것이다. 삶이 자연 그 자체이듯이 평화도 자연적인 것이다. 이러한 대전제를 가졌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왜 평화냐’고 묻는 것은 ‘왜 사느냐’고 묻는 것과 같은 우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함석헌의 “평화는 공존의 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평화만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말이 선언적인 말보다 조금은 진전된 듯해 보이나 그 말은 너무나 자명한 해석이다. 평화를 그토록 반복하면서도 그에게서 평화에 대한 정의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이미 그가 선언한 대로 평화는 논(論)의 대상이 아니라 삶 자체이며 필연적인 길이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며 그에게 있어서 평화는 신념의 내용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 아님을 꼭 재확인하고 넘어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는 결코 평화의 길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평화를 가로막는 많은 적들을 인정하고 이를 타파하려는 노력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반 평화적인 대상에 대한 투쟁의지에서 그의 평화에 대한 보다 확고한 그의 평화에 대한 생각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 2)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

### (1) 반평화적 요소들

함석헌은 궁극적인 평화를 낙관적인 것으로 본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신념화하면서도 평화를 가로막는 무서운 장벽을 직시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의 평화를 가로막는 반 평화적 대상은 무엇일까? 이를 좀 더 자세히 개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그는 첫째,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라는 것을 거부한다. 그는 정치가 현실을 사실상 좌우하고 삶 깊숙이 침투되어 있음은 인정 하였으나 정치는 무엇이든지 본연의 것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므로 결과적으로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를 원칙적으로 거부했던 것 같다. 정치의 목적은 권력 장악에 있으므로 그것은 그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 '폭력'에 호소하게 된다는 그의 주장은 이를 뒷 받침해주는 좋은 근거가 될 것이다. 물론 정치의 최후의 목표는 권력을 손에 잡는 것이다. 권력을 잡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폭력의 집단인 병력을 양성 하도록 되는 경향이 대부분이 정치행태에서 나타난다. 특히 그것은 좀 더 효율적인 병력의 육성과 지휘를 위하여 군사주의를 낳는다. 함석헌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였던 것 같다. 그는 권력을 지향하는 정치세력은 그의 폭력이 미치는 범위만큼 그의 판도를 넓히려고 한다. 그리고 그 판도의 경계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국가라는 것은 처음부터 폭력을 기본적인 통치수단에 포함하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는 구조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도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그의 주장은 다음의 인용 문장에서 좀 더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함석헌은 국가의 이러한 본성을 국(國)자 풀이에서 재확인한다. 가운 데의 구(口)는 사람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 아래는 땅을 표시하는 것이며 옆의 과(戈)는 그것을 지키는 무기를 표시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의 세 요소를 표시하고 이러한 것을 국경을 뜻하는 외곽을 두른 것이

구(口)인데 그것이 곧 나라라는 글자이다. 그러므로 나라는 폭력으로 판도를 설정하고 통치하는 폭력기관이다. 국가가 있기 전에 폭력이 있었다고 보며 폭력으로 얻은 전리품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만들고 또 그 국경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악순환을 숙명처럼 내포한 것이 국가라고 본다. 바로 이러한 국가를 만든 장본인이 권력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인 정치인이며 따라서 정치인은 약탈을 일삼으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함석헌은 그들을 큰 도둑놈들이라고 단정하는 것이다.<sup>3)</sup>

지배자들은 정치 없으면 못 산다고 하지만 이미 정치가 있기 전에 사회가 있었고 문화가 있었다. 또한 종교도 있었고 시도, 음악도, 그림도 있었다. 생각하는 것을 정치가 가르쳤다고 할 수 있는가, 농사와 기계 만들기를 정치가 가르쳤던가. 그런 것이 다 있는 후 정치가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정치란 그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함석헌도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란 있어야 할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국가지상주의를 맹렬하게 비판한다. 함석헌은 우리가 국가지상주의 때문에 희생되어 역사의 제단에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죄악의 결과에서 해방될 때만이 우리도 살고 세계도 산다고 보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지상주의를 맹종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형태임을 계속 역설한다. 그러므로 그는 정부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 통치는 없어야만 없어지는 것만큼 평화가 온다고 반복한다. 그러나 국가라는 것이 있는 한 그 본질상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가지상주의를 반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국가주의, 나아가서는 국가 자체를 거부하기에 이른다. 이것을 뒤집어보면 그가 반 평화적인 것이 바로 폭력이라는 점을 결정적으로 인식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폭력을 합법화

3) 진덕규, 「씨울의 정치와 열린 나라로의 발전」, 『민족의 큰 사상가 함석헌 선생』, 한길사, 2001, pp.40-41 재인용.

하고 그것에 뿌리를 둔 것이 정치, 국가, 국경 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의 폭력에 대한 거부가 곧 반국가주의로 응결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 평화의 요소

함석헌이 평화에 대한 정의 그리고 반 평화적인 요소들을 열거하는데 있어서도 서구의 전통적인 시각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 전통에 있어서 평화를 말할 때는 언제나 '균형'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본질로 보았다. 문화에 있어서 균형 있는 자유의 확보, 정치에 있어서 평등한 법의 적용, 경제에 있어서 공정한 분배 등을 이룰 때만이 평화가 존속되고 바로 그것 자체가 평화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이 균형이라는 것은 정적인 것이 아니고 언제나 가변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따라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사고는 냉전시대의 논리에까지 지속되었으며 힘의 균형을 잡을 때만이 평화가 가능하다는 이 논리가 평화를 추구한다면서 전쟁무기의 경쟁을 합리화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탈냉전시대에도 다를 바 없었다. 탈냉전시대에도 일방적인 평화 선언이나 그 실천이 아니라 상대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함께 군축을 체결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만이 평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함석헌은 '균등'이라는 피상적인 평화론에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고 평화는 바로 본래적인 것으로의 회귀임을 계속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무엇보다도 앞서서 평화의 길로, 인간의 본성으로의 회귀를 평화의 알파와 오메가로 내세운다. 그는 위에서 얘기한 반 평화적인 요소들이 바로 이 인간의 본연의 성질을 억누르고 왜곡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평화를 파괴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인간은 원래 인(仁)임을 강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는 성선설(性善說)에 섰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밖에서 오는 장애에 의해서 변질될 때 적이 생기고 평화가 깨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불인(不仁)한 생각을 가지면 모든

것이 원수(身外皆敵)이지만 인을 내 속에 품으면 천하무적(天下無敵)이라고 한다. 정치나 권력이 인간이 본성을 변질시키므로 이기주의, 분리주의, 차별주의, 집단주의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종합체인 국가지상주의에 종속되게 만드는 데 대해서 참 평화의 길로 다음과 같은 노장적인 입장을 내세운다. 대기를 마시고 가스를 뱉으니 평화요. 먹을 것을 먹고 마실 것을 마시고 담긴 찌꺼기를 내보내니 평화요. 햇빛을 보고 웃고 바람을 쐬고 죽지를 펴니 평화이다. 이것은 분명히 자연주의이다. 그는 인위적인 것일수록 반 평화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인위적인 것이 자연스러운 길을 가로막는 현실에서 본래의 자기를 지키는 길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함석헌은 평화의식은 전체의식에서 출발되어야 한다고 한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자각이 평화의 근원이다. 이 전체의식은 도덕적, 정신적 인간의 바탕이다. 여기서 그는 전체를 세 개의 테두리로 표시하는데 작개는 가정이고 크개는 우주라 하고 그 중간을 민족공동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 내용을 인위적으로 분리시켜 보는 것뿐이고 우주적 전체라는 테두리 안에 다른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그런 전체 밑에서 그는 한국의 평화적 통일의 길을 본다. 한국은 오랫동안 단일민족이었으므로 전체의식을 가지기에는 비교적 쉬울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역사적·사회적으로 다원화된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다. 더욱이 지금의 남북분단을 한국에서의 평화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인식하여 구체적으로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로 보고 있다. 이 분단의 책임이 외세에게 있든 자기에겐 있든 지간에 양 세력의 지배층이 내세운 이데올로기를 전체의식을 갈라놓는 가장 무서운 독소로 본다. 또한 그는 이 분단이 지배층에 의한 인위적인 것이고 민중은 분단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남북의 민중이 결합하는 것만이 한국 민족의 전체의식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둘째. 종교적 신념이다. 함석헌은 평화운동은 바로 정신운동임을 전제하면서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에 앞서야 한다는 신념을 고수한다. 사회

운동이나 정치운동은 외적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해서 평화운동은 '속마음'에 관계된 것으로 그것은 종교적 차원의 것이다. 그런데 그가 종교적 차원이라고 할 때 그것은 기성종교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제도화된 종교는 더더욱 아니다. 그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궁극적인 것을 믿는 신념을 말한다. 이 신념이 있을 때 현실적 제약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에 가능, 불가능을 묻지 않고 평화를 향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전진을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람들이 전승하고 있는 고유의 사상인 하느님(한울님) 신앙은 평화로의 주춧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한국민족의 특성에 대한 재인식이 평화, 한국의 평화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운동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근거로 한국민족의 평화성을 내세운다. 무엇보다 그가 주시하는 것은 건국정신에 있어서 침략적 영웅주의 따위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4천 년 역사에서 남의 나라를 침략한 일이 없다는 것은 건국설화의 성격을 뒷받침해준다. 한걸음 나아가서 그는 한국 정신의 본원인 선도(仙道)의 기본정신을 평화사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선도의 기본사상을 무위(無爲), 자연, 정허(靜虛), 유약(柔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언뜻 보면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적극적인 것으로 그것은 바로 평화주의의 한국적 바탕이라고 본다. 그는 이 선도가 중국의 노장학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그것은 중국의 노장사상이 유입된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한국의 선도사상이 중국의 노장사상이 유입된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한국의 선도사상이 중국으로 가서 노장사상을 형성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능화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함석헌은 선도적 삶을 구현한 인물을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대표적으로 열거하는데 온달, 김도령, 처용 등이 그들이다. 그가 열거한 세 사람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서 선도적인 평화사상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다. 온달이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은 바로 그가 철저한 평화주의자였음을 뜻하고 처용이 제 아내를 겁탈한 마마귀신을 죽이지 않고 노래를 불러 물러나게 한 것도

평화주의이고 김도령이 장양의 청을 받아 철추로 진시황을 박랑사에서 때렸다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무력주의 같으나 실은 평화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평화사상이 그대로 계승되어 3.1운동과 4.19혁명이 비폭력 투쟁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넷째. 세계사적 비전을 들 수 있는데, 그것은 유약하고, 무능하고 이름 없이 음지에서 고난 받는 민중이 평화운동의 주역이 되어 온 세계를 평화를 이끌 수 있다는 신념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은 민중이 조건 반사적으로 계급적 의식을 갖고 지배자에게 저항하는 것으로 만족한 근시한적 복수 현상에 대해서 세계평화의 주인으로서의 의식을 가질 때에 비로소 평화에의 길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sup>4)</sup>

### Ⅲ. 평화론의 결정체 씨울사상과 구체적인 실현 방법 비폭력사상

#### 1. 평화론의 결정체 '씨울'사상

지금까지의 고찰에서 도달한 것은 함석헌의 평화에 대한 그의 입장 정확히 말하면, 평화에의 주체에 대한 그의 입장이다. 그가 평화의 정의로 사서(四書) 중의 하나인 '대학'의 '명명덕친민지어지선'(明明德親民止於至善)이라는 구절을 평화의 궁극적 경지로 보고 있는데 거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친민(親民)이다. 그가 스승으로 받드는 유명모는 이 민(民)이라는 것은 씨울이라고 번역했는데 함석헌은 많은 사상의 과정을 거쳐 결국 이에 착륙했다. 그러므로 함석헌은 그의 결론과 같은 씨울을 존중해서 그의 생애의 마지막까지 '씨울의 소리'라는 잡지를 냈다. 그런데 바로 이 씨울을 그는 평화의 담지자, 아니 평화의 원천이라고 본 것

4) 함석헌기념사업회, 『함석헌 사상을 찾아서』, 삼인, 2001, pp.134-155 참조.

이다. 그러면 씨올이란 무엇인가. 그는 거듭해서 그 정체를 표현하려고 했으나 이른바 사회과학적인 시도는 물론 하지 않았고 나아가 그런 것은 거부했으며 서구적인 의미의 철학적 정의도 시도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가 그런 것으로는 도저히 파악될 수 없는 보다 높은 차원의 근원적인 경지를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씨올이 무엇이나 라는 자문을 하고 말 그대로 “지위도 없이 권력도 없이 그저 땅을 디디고 서서 전체를 위해서, 전체라는 것을 의식도 못하면서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또 봉사하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자답하는데 일견 사회과학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나 그 뒤를 이어서 다시 “그러니까 난대로 있는 사람, 못났기 때문에 하느님이 만들어준 본성을, 그 바탕을 비교적 깨뜨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라의 주인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이라고 하는가하면 “씨올은 본질적인 평화이다. 씨올의 바탕이 평화요, 평화의 열매가 씨올이다. 그러므로 씨올의 목적은 평화의 세계 외에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여기서 함석헌은 씨올 자체가 바로 평화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씨올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 제 능력을 발휘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씨올이 영글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의미를 이해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그에게 씨올이란 잠재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확신 속에서 함석헌은 “씨올을 못살게 굴지 말고 가만두는 것이 중요한일이다. 그것이 바로 평화에서 시작하자는 말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즉 씨올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이 평화의 열쇠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제안을 하는 그는 그 실현이 그토록 단순하지 않음을 이미 그도 알고 있는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국가주의의 암벽을 무너뜨리고 폭력주의의 사나운 짐승을 잡기 위해’라는 전제 밑에서 다음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세계의 씨알이 몽쳐야 한다. 둘째, 씨알이 과학을 체득하여야

한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씨알 개념에 모순되는듯하나 그가 과학을 체득하라는 것은 씨알의 적을 앗으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힘을 모으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그는 이 씨알이 씨알로 있기 위해 세계적인 평화기구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한다. 그래서 그는 씨알이 맨 마음을 가지고 국가주의와 싸우는 것은 아메바가 사자에게 대드는 것과 같고 바위를 제란으로 때리는 것과 같음을 안다. 그러나 그는 “사자는 죽어도 아메바는 영원히 살았으며 바위는 마침내 부서지며 물은 길이 하나로 흐르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말로 그의 씨알에 대한 철저한 낙관론을 양보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그가 평생을 평화라는 틀 안에서 살 수 있게 한 원동력인 것 같다.<sup>5)</sup>

## 2. 비폭력 사상

비폭력이란 개념은 고전적인 연원을 갖지만 근대에 와서 헨리 데이빗 도로우(Henry David Thoreau 1817-62)의 시민 불복종 운동(civil disobedience), 레오 톨스토이(Leo Tolstoy 1828-1910)의 성서해석을 통한 발전에서 새 발단을 찾을 수 있다. 함석헌이 먼저 접한 것은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 1869-1948)를 통해서였다. 그가 번역하기도한 간디 자서전과 로망 롤랑의 간디 전기가 함석헌이 비폭력사상에 몰입하게 한 결정적인 계기를 주었다. 하지만 함석헌은 시대마다 감옥을 들락거린 파격적인 인생을 살아간 울곧은 종교인이었으므로 그 안에서 독자적으로 비폭력사상의 싹이 움트고 있었을 법하다. 비폭력은 종교의 근본이 아닌가. 자기 속에서 자라난 생각이 간디를 읽고 마주침이 일어나서 신념이 되었을 것이다. 함석헌이 비폭력을 추켜든 것은 간디에게서 큰 영향을 받은 결과인 것은 분명하지만 나름대로 생각한 점이 있었을 것이다. 한 가지는, 역사가의 시각에서 개인에 의한 모든 혁명은 무력적

5) 안병무, 『사람과 사상』, 한길사, 1996, pp.153-175 참조.



이었고 그 혁명은 모두 실패한 것을 상기했다. 나폴레옹, 이성계, 박정희, 레닌, 모택동까지가 다 그렇다는 것이다. 그는 학생들이 모택동 사상에 대해서 한창 심취할 때도 비판했다. 현실적으로 작은 폭력으로 큰 폭력을 당할 수도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그가 도가 노장 사상을 좋아한 이유도 비폭력을 함의한 무위 자연 사상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비폭력처럼 도는 목표요 목표에 이르는 길이었다. 비폭력이라는 “올바른 수단이 목표로 이끌어가듯이” 바른 길이 진리로 이끈다.

비폭력이 몇 선각자의 독창적인 특수한 사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간디와 함석헌이 파악한대로 사람이 예부터 걸어오던 길(古道)이다. 이들은 다만 술이부작(述而不作)한 것이다. 비폭력은 모든 종교와 문화에서 강조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률이다. 비폭력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죽이지 말라”는 계명 바로 그것이다. 힌두교는 물론, 기독교에도, 불교에도, 한민족의 옛 윤리인 팔조금법에도 나오는 기본 계율이다. 다만 죽임의 대상이 인간 만이냐 다른 생물까지냐가 다를 뿐이다. 인간중심주의인 기독교와 모든 중생까지 포함하는 인도 기원 종교의 차이가 드러난다. 어원적으로 ahimsa는 “不(傷)害”(non-injury)이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不殺로 테두리가 압축되고 좁아진 셈이다. 사실은 불살계만 실천해도 인류문화가 꽤 진전했다하겠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불상해, 즉 비폭력이라야 될 것이다. 폭력을 쓰다 죽이는 경우가 있고 어떤 폭력이든 폭력은 악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악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성립되지 않는다. 일찍이 신라 시대 한 불교법사(원광)는 화랑도라는 청년군사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속오계라는 상황윤리를 만들어 불살생을 살생유택으로 바꾸는 지혜를 보여주었다. 신라불국토 설과 호국불교를 내세워 왕권을 유지해야하는 입장에서 현실타협의 소산이지만 간디와 함석헌의 종교적 진리관과 윤리관의 입장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어중간한 입장이다. 불살생은 타협 대상이 아닌 절대윤리요 진리자체이기 때문이다. 비폭력이 이미 종교윤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에도 그 원리를 왜 다시 강조해야 되었는가. 함석헌은 시대마다 새로운

말이 있어야 한다고 되된다. “각 시대는 제 시대의 말씀들을 가진다.” 비폭력은 이 시대의 말이다.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라는 말을 새로 썼다. 아직도 통용이 되고 있지만 ‘사랑’은 너무 진부하고 천박한 말로 추락해서 아가페적인 참다운 뜻을 잃어버렸다. 더 이상 약탈이 서지 않는 말로 떨어졌다. 마치, people을 뜻하는 백성, 인민, 국민이 그 뜻이 제한 당하여, ‘씨올’이란 말을 쓰는 것이 좋은 것처럼, 사랑, 자비, 인을 오랜 시간동안 사용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인 초점을 잃어버린 막연한 말이 되어버린 시점에서 주의를 이끌만한 새 말이 필요하다. 성경의 “사랑은...” 정의는 얼마나 포괄적인가.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그 다양한 실천요목들이 얼마나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가하는 의문이다. 채식주의 전통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간디는 남아프리카에서 겪은 인종 차별과 영국의 인도 식민지배의 환경 속에서 현실 변혁의 전략으로서 새로운 도구를 찾아냈어야 했다. 단순한 도구만이 아니고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도구가 바로 비폭력이었던 것이다. 개인윤리의 차원에 머물러있던 것을 간디가 사회적 차원으로 끌어 올렸다. 모든 사회적 문제를 궁극적으로는 종교적 차원에서만 풀어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함석헌에게 비폭력이 강한 공명을 일으킨 것은 당연하다.

함석헌은 「간디의 길」에서 “나는 이제 우리의 나갈 길은 간디를 배우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우리와 인도의 사정이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외세 때문에 가난과 무지와 타락이 심한 인도와 우리나라의 불행은 극복하는 일은 “간디가 인도 민중에게서 한 것 같은 깊은 속의 혼을 불러내는 진리운동이 아니고는 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간디에게 있어서 “정치와 종교가 잘 하나로 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간디는 “정치문제를 종교적으로 해결했다.” 함석헌의 관점에서 “인류가 오늘에 당하는 고민은 종교를 무시하고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 했던 결과로 오는 것이다.” 정치와 종교는 “유기적인 통일”과 균형, 상호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역사가 가르친 위대한 교훈

이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것은 “자아의 분열을 일으킨” 상태를 가져왔다. 왜 종교인인 그가 모든 시대에 감옥을 들락거리면서 현실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서슴없이 했는가 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함석헌이 잘 관찰한 대로, 간디는 “종교를 여인 정치는 갖다 버려야 할 쓰레기더미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렇게 밝혔다: “나는 내가 스스로를 인류 전체와 같이 보지 않고서는 종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며,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내 허리에 구렁이처럼 정치가 감겨 있으니까” 이걸 떼버리려고 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간디의 주장을 함석헌은 받아들인다.

셋째, “앞날의 세계를 위한 평화운동에 있다.” 함석헌은 “이제 나와 너의 구별이 없는 하나의 세계가 되어가고 있다”고 내다 봤다. 그래서 더욱 더 “세계의 하수도”요 쓰레기통인 “우리아말로 불의의 값을 내 등에 짐으로서 나와 저를 살리자는 간디의 정신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가간에도, 특히 강대국들이 “간디가 열어 논길을 택하는 수밖에 별다른 길이 없을 것이다”.

비폭력의 사회적 적용은 함석헌의 존재론과 잘 부합한다. 그는 나와 너의 관계를 일원론적, 전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칼릴 지브란의 말로, “내 이웃”이란 “내 또 다른 자아”(my another self)이다. 누구에게나 정신이 있다는 점에서 “네 정신, 내 정신을 따로 가를 수가” 없다. “여러분과 내가 서로 남이 아니고” “남의 일을 내 일로 알아서 하나가 될 줄 아는 것이 곧 나라”이다. “사람은 다 불쌍한거야. 다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 내 속에 그것들이 다 외 있어. 우리 다 형제지. 다 하나님 의 모습을 가졌으니까. 그 사람 욱하진 마시오.” 이 관점은 간디가 뿌리를 둔 인도전통의 카르마 사상과 윤회관에는 닿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연기론적 세계관과 접촉한다. 여기서 함석헌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같이 살기 운동’이 나온다. 이 슬로간은 근대 한국 종교들이 강조하는 상생(相生) 사상과 정통으로 일치한다. 그 안에서 민족정신이 표출된 것이다. 그 정신이 비폭력 사상으로 더 강화된다. 원융회통(圓融會通), 조

화, 상생은 한국정신의 독특한 모습으로 지적되어 왔다. 같이 살기, 상생의 원리는 다름 아닌 그가 내세운 '씨올'이란 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함석헌은 비폭력이란 말조차 낡아지고 있다고 생각했던지 나중에 가서 한걸음 더 나아가 '씨올' 개념을 개발하여 사상을 세워갔다. 한국의 역사와 현실 속에서 잠재된 변혁의 도구를 나타내는 새 말, 자기 말을 찾아낸 것이다. 이 말은 비폭력을 안으면서 다른 차원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씨올은 비폭력을 그 사상과 행동의 원리로 삼습니다."(<우리가 내세우는 것>) 그렇다고 비폭력이 낡거나 퇴화된 말이 아니다. 이를 한국 현실에서 보완하기 위하여 다른 말을 내세운 것일 뿐이다. 간디가 아슈람을 세우고 잡지(Young India)를 내면서 진리파지(satyagraha) 운동을 펴나간 식으로 함석헌도 『씨올의 소리』를 내면서 "같이 살기 운동"을 펴나가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간디가 인도의 독립을 성취하듯 함석헌이 분단종식 같은 일을 일궈내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지만, 가장 큰 요소는 비폭력을 이해하고 채택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운동권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김민석의 『타임』지 회견) 하는 입장에 있어서 함석헌의 주장은 설득될 수 없었다. 화염병과 자살이 이를 증명한다. 비폭력보다는 "방어적 폭력," "사랑의 폭력"의 당위성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한국의 민주화는, 6.29선언에서 나타났듯, 결국 비폭력 운동이 가져온 결과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민주화에서 함석헌의 공로는 개인적으로는 누구에게 못지않을 것이다. 서남동이 짙어냈듯이 전태일의 분신을 민중운동의 하나의 기점으로 삼은 것은 함석헌의 공이다. 그는 이름을 "웅근 큰 하나"로 풀이, 전체론(전일사상)과 연결시키며 전태일을 기렸다. 이것이 간디의 투쟁에 맞먹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라도 오늘의 민주화가 이런 비폭력 민중투쟁의 결과가 아닐까. 물론 화염병이 상징하는 투쟁방식이 동원되었지만, 크게 보서는 비폭력적인 운동의 승리로 봐야한다. 만약 화염병이 사

용되지 않고 6.29 같은 대중운동으로 진행되었다면 더 효과적이었을 법하다. 전태일에서 보듯 비폭력의 원칙인 자기희생 요소가 뚜렷했다. 또 하나의 비폭력투쟁 이유인 작은 폭력이 큰 폭력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도 증명되었다. 결국 민중, 더 깊은 뜻에서 씨의 승리가 아니었을까.

비폭력의 문제는 비폭력이 폭력만 안 쓰면 된다는 식의 소극적 자세로 보인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간디나 함석헌이나 평화, 비폭력을 말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있었는가. 누구보다 더 투쟁, 감옥살이의 연속이었다. 무저항이라니까 오해를 일으키기 쉽다. 함석헌도 이것을 지적하면서 생명의 본질을 저항에 두었다. 심리학자 에릭슨(Erikson)은 「간디의 진리」(Gandhi's Truth)라는 책의 부제에서 “전투적 비폭력”(militant nonviolence)이라고 수식한다. 일견 모순되게 들리지만 그만큼 적극적인 말이다. 간디처럼 함석헌도 “싸우는 평화주의자”이며 “수줍은 투사”였다. 그 자신도 “사상의 게릴라전”을 벌이자고 주장했다. 그만큼 비폭력 평화 운동은 적극적인 행동을 수반한다. 비폭력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실천을 가리키는 개념들, 즉 사랑, 인, 자비, 무위 등과 같이 도덕윤리의 핵심 개념이 될 자격이 있는 말이다. 이 중 어느 하나만 실천해도 다른 덕목들도 실천한 결과가 된다. 불가에서는 팔경도가 있지만 선이나 지혜 하나만 강조하는 종교가 생겨나게 되었다. 12가지 연기의 사슬에서 어느 하나만 끊으면 윤회의 굴레가 끊기고 해탈이 성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무명(無明), 집착(取) 등은 더욱 그렇다. 마찬가지로 비폭력만 완전히 실천한다면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간디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신을 진리로서 깨닫는 것이고, 철저히 저기를 버리지 않고는 비폭력을 이룰 수 없으며, 비폭력은 곧 보편적 사랑”임을 밝힌다.

‘보편적 사랑’이지만 구체적 실천 대상은 자기 이웃인 민족이 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민족보다 진리가 우선한다는 점에서 간디와 함석헌은 일치한다. 함석헌에게 민족은 한 세계로 가는 길목에 있는 집단형태이다. 그는 스스로가 결코 민족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민족

주의를 넘어서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반됩니다. 그 걸로는 안돼요... 젊은이들과 만나면... 말합니다. 민족주의는 지나간지 오래다. 따라서 우리의 운명도 세계적 관련 위에서 파악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학생들은 안 그렇습니다. 생각이 뒤졌어요. 민족주의는 우리를 속이려고 내세우는 것입니다... 민족주의 자체만으로는 안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고난 속에서 같이 살아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없다. “지킬 수 있는 데까지는” 지켜가야 하는 것이 민족이다. 이런 점에서는 세계주의자, 전체주의자 함석헌보다는 간디가 좀 더 민족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인도전통의 가치에 대한 자부심이 개입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6)

#### N. 結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함석헌은 소위 말하는 학문의 전당에서 어느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적도 없으며 학문적인 체계를 가지고 저술 활동을 전개한 적도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거침없이 동양과 서양의 사상을 자신의 독특한 말과 문체로 자유롭게 펼쳐 나갔으며 오랜 시간의 깊은 사색과 공부, 그리고 투철한 실천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형성시켜 나간 결과 함석헌은 한국 근대사의 가장 중요한 사상가의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함석헌의 사상 안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속에 깊고, 푸른, 그리고 다양한 물줄기가 굽이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고, 이 물줄기는 다양한 시대와 지역, 종교와 사람들을 막힘없이 넘나들며 하나로 힘차게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즉 그의 사상 안에는 동과서가 만나고, 불교와 기독교가 만나고, 노장의 자연주의와 성서적 역사주의가

6) 김영호, 『함석헌의 비폭력 사상의 연구』, 현대사상이론학회, 현대사상이론연구 31호, 2005.

만나고, 종교적 신비주의와 합리적 과학주의가 만나고 있는데 단순한 병존이나 같등이나 천박한 습합(習合)이 아니라 인류 미래의 종교의 어떤 방향을 암시하는 실증적 범례가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의 다양함과 포괄성 때문에 어느 하나의 틀로서 설명하고 해석하려 든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의 사상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서구 합리주의적 학문 방법론에만 익숙한 지식인들이나, 학문의 식민주의성을 벗겨내지 못한 학자들은 함석헌의 사상을 분석하거나 비판하기 이전에 그 안에 발을 디딜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설사 몇 편의 글을 읽어다하더라도 그 깊이에 다다르지 못할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오늘날 함석헌의 사상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게 하는 주요인이기도 하며, 또한 그로 인해 그의 사상의 좀 더 연구되어 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sup>7)</sup>

그렇다면 이러한 씨울운동의 과연 지금의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고 있을까? 한국의 씨울 사상운동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보는 이들은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한국의 씨울사상운동은 신천옹의 타계이후 침체에 들어갔다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씨울들은 각기 자기 자신의 씨알껍질 속에 칩거해 들어가서 자기 세계안에 농성하는 형국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씨울생명은 물론 씨울 하나하나가 전체를 대표하고 그 안에 전체를 담고 있지만,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씨울은 생동하는 역동성을 지니면서 끊임없이 다른 씨울들과 연대 교류를 강화하고 대화, 교류, 협동, 상호성숙, 선행에 힘써야한다. 그러나 좀더 사실적으로 말해서 한국의 씨울운동은 고립주의, 단독주의, 은둔주의, 개인주의 성향이 짙다. “독야청청하리라”라는 독선주위 위기마저 보인다. 씨알사상의 중요한 원리중 하나가 “스스로함의 원리”라고 알고 있으면서 한국의 씨울운동은 스스로 자기를 훈련하고 키우고 깊이하고 넓게 하는 대승적 열린 생각이 매우 부족하다. 위대한 영혼들은 홀로서도 천만인을 감당

7) 함석헌, 「80susei 민족통일의 꿈을 그려본다」, (1980년 2월 6일 YWCA대강당), 「씨울의 소리」, 1980년 3월호 재인용.

할 만치 위대하지만 평범한 씨올들은 덧없이 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이다. 씨올사상의 중심은 이론이 아니고 실천적 삶이다. 정신적 지지가 아니라 몸으로서 참여를 통한 생명적 투쟁에 있다. 삶은 아름답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우 치열한 것이다. 그러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진정으로 자신의 바라는 바를 얻고자 노력하지 않는 이론적인 씨올은 무의미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8)</sup>

당연히 위와 같은 비판이 전부 그르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촛불 시위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것이 함석헌의 꿈꾸던 씨올이 아닐까라고 반문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화 하고 그것을 비폭력적으로 표현하는 모습들에서 함석헌의 꿈꾸던 진정한 씨올이 의미를 찾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비약적인 주장의 될 수도 있겠지만, 사상의 변화한다는 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외형적인 요소들의 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 전제를 한다면, 그런 주장도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일수도 있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그가 가졌던 씨올사상 그것이 가지는 함축적인 의미를 현대의 변화 된 사회에 완벽하게 맞춰 놓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상의 가진 모태라 할 수 있는 본질적인 힘 즉 대중을 깨우치고 그들 스스로 사회를 움직여 나가게 한다는 그 중심적인 사상만은 현 시대의 평화를 말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이치석, 『씨올 함석헌 평전』, 시대의 창, 2005.  
진덕규, 『씨올의 정치와 열린 나라로의 발전』, 『민족의 큰 사상가 함석헌』

8) 안병무, 『사람과 사상』, 한길사, 1996, P153-175 참조



- 헌 선생』, 한길사, 2001.  
함석헌기념사업회, 『함석헌 사상을 찾아서』, 삼인, 2001.  
안병무, 『사람과 사상』, 한길사, 1996.  
김영호, 『함석헌의 비폭력 사상의 연구』, 현대사상이론학회, 현대사상이론연구 31호, 2005.  
김성수, 『함석헌 평전』, 삼인, 2001.  
노명식, 『함석헌 다시읽기』, 인간과 자연사, 2002.  
전대열, 『咸錫憲 싸우는 平和主義者』, 동광출판사, 1982.

<ABSTRACT>

**Thoughts and Life of Korean Thinker,  
Ham Seok-heon**

Chun Jin Woo

This paper wrote about Ham Seok-heon, a philosopher who later devoted himself to the non-violence movement in Korea. From his deep spiritual understanding, he cultivated a philosophy for a practical life. Based on Christianity, he combined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to produce a thought that can be globally adopted. And he was a great philosopher who combined the spirits and philosophies of the East and West. Ham was a non-violent pacifist thinker and follower of Yu Young-mo. Unlike Yu, Ham was active in various social activities to bring democracy, and shared the suffering of the people. He represented thoughts of the grassroots through various channels such as the media, lectures and books.

By this, he could get into a state of deep spirituality and transcendental freedom and reached the love and faith that could hold everything in the heart. He thought that people not only have to believe Jesus, but also have to follow his life to save the world. Ham's independent but universal philosophy of life was based on his own experience in body and mind. His deep faith, passion for the nation, democratic views and philosophy for the world peace can also be found in that book. His writings and thoughts are persuasive in the real world because they come from the author's own experiences of life and history. Ham criticized the nationalistic civilization pursuing competition and conquest. He combined the Christian spirit, a scientific way of thinking and a nature-friendly life philosophy of Korea and wider Asia to create a philosophy that covers both Eastern and Western civilizations and will contribute to the peace of the world. According to him, God is in and with "ssial" as in the meaning of ordinary people. So, "ssial" was engrained in the center of history and the universe. His nonviolence and peace philosophy stresses love that individuals should have when they stand among the whole community.

**Key Words** : Ham Seok-heon, Yu Young-mo, Ssial, nonviolence and peace philosophy